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강영택(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당장에 나타나는 교육성과 보다는 보다 내면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성과를 추구하고 있었다. 잠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면적인 교육성과에는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의 성장, 삶의 목표 설정,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이러한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구현되고 있음을 중요한 교육성과로 볼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이러한 교육성과를 얻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의 규모가 작고 신앙을 토대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라는 점이다. 둘째, 교직원들의 높은 헌신도가 학교의 교육성과를 낳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물질적, 정신적 후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성과, 질적 사례연구, 배움의 공동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독교대안학교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다. 학교의 수도 80여개가 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들어 급속도로 설립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증가 추세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위기와 한

계가 기독교대안학교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면, 온전한 의미에서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열망이 기독교대안학교 부흥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학교로서의 성격과 기독교학교로서의 본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현해보지 못한, 기독교세계관에 토대한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한 기독교대안학교 운동이 1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일부 낳고 있는 반면에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민들레편집실, 2005; 이수광, 2005; 현병호, 2005).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비판이 기독교와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유래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기독교대안학교 내부에 실제 존재하는 문제점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역사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여건,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과 같은 투입과 과정 요인에 대한 연구나 보고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박상진, 2007; 정희영, 2009; Kim, 2009). 그리고 학교의 교육성과는 학교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탐구해야할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기독교대안학교들의 교육활동이 그들이 목표한 바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한다.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신앙적 성장이 학교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행정 등이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잘 내포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탐구하는 것은 기독교대안학교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학교운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성찰의 기회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학교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뿐 아니라 일반학교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성과분석은 일반 학교에 대한 성과연구와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차별성을 갖는다. 기독교대안학교 역시 학교라는 면에서는 일반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적 성과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 특히 기독교대안학교의 등장이 일반 공교육

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점이란 사실을 감안한다면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평가는 일반학교에 대한 평가와 달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범주화되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성격의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여 목표나 성과를 표준화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성과분석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준거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학교 내부의 시선으로 그 학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학교의 내부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질적 연구방법론을 취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들 가운데 세 학교를 선택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문제

기독교대안학교의 성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문제들을 갖는다.

첫째, 학교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학교에서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셋째, 학교의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넷째,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요소와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학교가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목표의 일치 여부와 학교 구성원들의 목표 공유 정도, 학교목표의 변천 여부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목표의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행정, 학교문화 등에서 학교교육의 목표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교육목표의 달성 정도와 달성에 대한 기여와 장애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과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는 “기존의 공교육제도에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 철학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주체자들에 의해 기독교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학교”(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17)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박상진(2007)에 따르면, 기독교대안학교는 다음 세 가지 대안성을 추구한다. 첫째, 근대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대안학교는 탈-개인주의적(post-individualistic), 탈-합리주의적(post-rationalistic), 탈-이원론적(post-dualistic), 탈-지적인(post-noeticentric) 교육을 지향한다. 둘째,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대안학교는 가치중립적 교육의 신화를 비판하면서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입시위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셋째, 미션스쿨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대안학교는 학교의 건학이념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교수방법, 학교행정 등 실제의 학교교육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역사는 일반 대안학교의 역사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안학교운동이 1990년대 초반부터 방과 후, 주말, 계절학교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실험을 시도한 것처럼 기독교단체에서도 새로운 기독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주말학교와 계절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¹⁾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안교육의 특성화학교로 개교한 6개 학교 가운데 한빛고등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이고, 1999년 개교한 푸른꿈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등 4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모두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이다. 오늘날 대안학교의 첫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50년 전통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역시 기독교적 정신을 강조하는 학교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중심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풍부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1) 대표적인 예로 계절학교로는 기독교사회(TCF)에서 1993년, 1994년 운영한 겨울실험학교가 있고, 주말학교로는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사모임에서 운영한 새롭학교가 있다.

(고병현 외, 2009; 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선숙, 2001; 이병환 외, 2008; 이종태, 2001).

기독교대안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8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연구된 바로는 2006년 기준으로 43개 학교가 조사된 실정이다(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연구된 43개 기독교대안학교 가운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13개이고, 나머지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43개 학교 가운데 10개교가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고, 나머지는 2000년대 이후 설립된 학교들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에 24개교가 있어 절반을 넘고, 교회가 설립한 학교가 17개 학교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학교급으로는 고등학교나 (초)·중·고가 함께 있는 경우가 32개 학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김(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토대하여 교과를 가르치지 못하는 미션스쿨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대학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로 비판받는 공립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장들은 학교의 설립목적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 종교를 가진 학부모들도 기독교대안학교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교육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비기독교인 부모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영역과 교수-학습적인 면에서의 기대감으로 기독교대안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Kim, 2009).

2. 학교교육의 성과 분석

학교교육의 성과 분석에 대한 관심은 서구에서 1980년대 활발했던 학교효과성(school effectiveness) 연구 이후 꾸준히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학교교육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학교평가를 제시한 이후 학교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급 학교의 실태 및 교육수준 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한 바 있다(김양분 외, 2003; 2007; 임현정 외, 2008; 최정운 외, 2007; 2008). 학교교육의 실태분석에는 교육여건, 교육활동과 함께 교육성과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개 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하여 교과별 학업성취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검소, 배움주의, 양보, 협동 등의 인성과 같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김양분 외, 2007; 임현정

외, 2008).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로서의 성과분석 외에도 학교의 교육성과 지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정택희 외(2008)는 학교교육성과 모형에 학업, 인성, 자기계발, 학교만족도, 학교수상/인증, 학생보유력 등의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일반학교에 대한 성과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안학교나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대안학교의 교육만족도 연구(손영덕, 2003; 이춘화, 2004),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 자율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김태연, 2008),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실태연구(강영혜, 박소영, 2008; 엄재춘, 2005), 대안학교의 가능성에 대한 질적 연구(조용환, 1999), 기독교대안학교 자체 평가를 위한 준거 개발 연구(이정미, 2006)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

이춘화(2004)는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세 개의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의 교사, 수업, 학교생활,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육성과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교육성과의 영역은 인격형성, 지식함양, 정서적 평안함, 지식의 유용성,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이춘화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한 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교사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강영혜, 박소영(2008)은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계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실태를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분석하였다. 대안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재적 학습동기와 적성중심 진로의식에서 전문계 특성화고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대안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보다는 높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소속감을 보여주는 몰입(engagement)에 대해서는 대안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안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80%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위기, 친구들과의 친밀한 분위기 등을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조용환(1999)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안학교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국에 있는 네 개의 대안학교를 선정하여 문화기술지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들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논리와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그 연구를 통해 대안학교의 교육적 성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 성공의 원인으로 대안학교 사람들이 보여준 교육적 실천의 의지와 용기를 들고 있다.

이정미(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기독교대안학교 평가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미국의 기독교학교연합회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의 영역을 교육의 목적을 포함하는 교육의 기초 영역, 학교의 조직에 관한 공동체 영역, 학교구성원 영역, 학생 영역, 교육과정 영역으로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의 평가영역에는 학교교육의 성과는 빠져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기독교대안학교란 학교가 공식적으로 교육목표에 기독교적 성격을 천명하는 대안학교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독교대안학교들 가운데 학교인가 여부, 학교급, 학교위치(도시형 또는 전원형), 졸업생 배출 등을 고려하여 세 개의 기독교대안학교를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학교인가 여부는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학교급은 학교의 설립 목적의 차별성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학교위치는 기숙사 생활 여부 혹은 학생들의 생활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졸업생 배출은 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졸업생을 배출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들로 삼았다.

선정된 학교들 가운데 먼저 미래학교²⁾는 2006년 설립한 유·초등학교이다.³⁾ 아직 정 부로부터 대안학교 인가를 받지 않았고, 수도권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11개 학급, 학생 수는 184명이다. 지역의 한 교회가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 여기에 등장하는 학교명과 인명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3) 학교 설립준비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유치원 프로그램의 시작은 2000년부터이나 학교의 공식 개교일을 2006년으로 삼고 있다.

2009년 첫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여 중학교로 진학 시켰다. 두 번째 대상학교인 강촌학교는 2002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학교로 역시 미인가 대안학교이다. 각 학년 한 학급씩 전부 6개 학급이고, 총 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1-3기 학생이 졸업을 하였다.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역시 지역 교회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같은 캠퍼스 내에 다른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학교인 동서고등학교는 1999년 설립된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총 8학급에 1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교가 도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일부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일부는 통학을 하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로서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세 학교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의 특성

	미래학교	강촌학교	동서고등학교
설립 연도	2006	2002	1999
법적 유형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인문계 특성화고교
학교급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급수	11학급	6학급	8학급
학생수	184명	52명	159명
교직원수	전임교직원 26명 시간강사 7명	전임교사 8명 시간강사 20명	전임교직원 29명
기숙사 유무	통학	전원 기숙사 생활	원거리 학생 기숙사 생활
학교 위치	도시형	시골 전원형	도시 외곽형

2. 연구절차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증거들을 기준으로 대상학교를 분석하기 보다는 대상학교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친숙하게 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학교의 구성원들과 충분한 래포(rapport)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였지만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최대한 학교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2009년 7월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연구의 허락을 얻었고, 8월부터 10월까지 학교들을 방문하여 교직원들과 관계를 가지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8월말부터 3개월에 걸쳐 세 연구대상 학교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과 면접을 하며 수업, 학부모교육, 교사회의 등 학교의 활동을 참여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 방문 시에는 그동안 면접했던 교직원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동안 수집하였던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자료 해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9월과 10월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자료에 대한 해석에 들어갔고, 2010년 2월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질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듯이 본 연구에서도 자료 수집을 위해 관찰, 면담, 포커스그룹 인터뷰, 문서와 기타 인공물(artifacts) 수집을 수행하였다(Yin, 2003). 먼저 관찰은 연구 개시부터 자료 분석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학교를 연구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업, 교과 외 활동, 교직원회의, 학부모교육, 학생 자치활동 등에 참여하고 관찰을 하였다. 관찰은 본 연구에서 특히 학교의 목표 실현방식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수집 방법이 되었다. 모든 관찰은 관찰지 프로토콜(protocol)에 따라 기록되었다. 공식적인 참여관찰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3회에서 8회까지 이루어졌다.

〈표2〉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영역	주요 질문 내용
학교의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의 영역별 내용 2. 일반학교와의 차별성 3. 학교구성원들의 교육목표 공유 정도 4. 교육목표의 일관성 여부
목표 실현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2. 교육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3. 교육목표와 학교행정 4. 교육목표와 학교문화
목표 달성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 2.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목표달성의 기여, 장애 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 달성의 기여 요소 2. 교육목표 달성의 장애 요소

두 번째 자료 수집 방식은 면담이다. 면담은 모든 연구 질문들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기법이 된다. 학교의 교장, 교목,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졸업생들을 면담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교육목표, 추구방법, 성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수행하였고 모두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가 이후 전사하였다. 면담은 각 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5~7명 내외, 학부모 2명 정도, 졸업생을 포함한 학생 3명 정도 수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대상 학교의 교장이나 부장 교사가 선정하여 주었다. 이는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이다. 이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라 할 수 있다. 면담은 대개 40~60분가량 소요되었고, 면담장소는 학교의 도서관, 교실, 교정 벤치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표 2>에 요약이 되어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개인 면담의 자료 분석에서 얻어진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거나 참여자들에게서 얻은 이해를 참여자들로부터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

기도 한다(Glesne, 2006: 155). 본 연구에서는 각 학교에서 개별면담이 끝난 뒤 마지막 방문에서 이미 면담한 교사들을(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포함하여) 포커스 그룹으로 삼아 면담을 실시하였다. 9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연구자는 조정자가 되어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들 사이에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서와 기타 인공물 수집을 통해 관찰과 면담으로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은 학교 발행 소식지, 학교 홍보 팜플렛, 학교교육계획서, 학생 평가표, 학교 홈페이지의 글, 학교건물의 구조 등과 같은 상징물 등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양은 <표 3>과 같다. 자료 수집을 중단하는 시점은 대개 이상적으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른 시점이라고 한다(Glesne, 2006).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심층면담이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듣게 되는 현상을 경험한 것은 수집된 자료가 연구를 위해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표 3〉 자료 수집의 방법과 양

		미래학교	강촌학교	동서고등학교
인터뷰	교장/교목	2명	1명	2명
	교사/행정직원	5명	4명	5명
	학생/졸업생	1명	3명	4명
	학부모	2명	2명	1명
	합계	10명	10명	12명
포커스그룹 인터뷰	교직원/학부모	5명	5명	4명
참관	수업	3회	4회	2회
	회의	2회	2회	0회
	그 외 활동	1회	2회	1회
	합계	6회	8회	3회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양적연구의 그것과는 다르다. 질적 연구에서는 대개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대개 초기 자료 분석과 후기 자료 분석으로 구분 된다(Glesne, 2006). 초기 자료 분석은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자료를 조직화하는 코딩의 과정이다. 후기 자료 분석에서는 “코드의 광산”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분류하며 범주화하여 정의를 내리고 해석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월코트와 조용환(1999)는 전기 자료 분석을 기술(description)과 분석의 과정으로, 후기 자료 분석을 해석의 과정으로 보았다. 기술과 분석이 자료에 충실하게 자료를 변환하여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자료를 토대로 하되 자료를 초월하여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5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자료 분석을 기술 및 분석의 과정과 해석의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 학교들의 교육목표와 교육 성과들을 기술함으로 학교들의 성과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학교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과 분석의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이를 토대로 대안학교의 성과분석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학교의 교육 성과가 학생들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지,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성과가 일반학교와 어떤 차별성을 보이며 일반학교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같은 논의를 시도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 분석의 결과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일반학교들과는 다른 교육적 성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성취하고자 한 교육목표의 차별성 때문이기도 하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갖는 교육적 여건과 교육활동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내면적인 교육성과를 찾아볼 수 있고, 다음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의 성장과 관련하여

배움의 공동체 실현을 들 수 있다. 장기적이고 내면적인 교육성과에는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의 성장, 삶의 목표 설정,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 학교와 교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기독교대안학교들에서는 교육목표를 향한 노력을 통하여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모두 점진적인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성과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장기적, 내면적 교육성과

일반 학교에서 교육성과를 측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진학률, 학생 보유력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교육성과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지 않았다.⁴⁾ 대신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의 내면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중요한 교육성과로 보았다. 교육의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기독교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략) 때로는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미래학교 40대 여교사).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 [강촌학교] 교육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강촌학교 40대 여교사).

이처럼 장기적인 성격을 띠는 교육적 성과를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4)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진학률이나 학생 보유력은 일반학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래학교의 경우 신입생 선발 시 경쟁률이 2:1 정도 유지되고 학생의 중도 탈락은 1년에 8~9명 정도 되는데 대개 외국 유학, 지방으로 이사,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라 했다. 올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6학년 학생 가운데 6명이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한다. 강촌학교는 교회 자녀들을 우선 선발하고 자리가 남으면 외부 학생을 받는데 신입생 선발공고를 내지 않아도 소문에 의해 신입생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중도 탈락은 역시 외국 유학 관계로 가끔 발생한다고 한다. 대학 진학률은 서울 강북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준으로 졸업생들 가운데 재수를 해서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한다. 동서고등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2.5:1 정도 된다고 한다. 중도탈락은 1년에 10명가량 되고, 진학률은 졸업생의 75% 정도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불구하고 다음 네 가지 정도는 현재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성과라 할 수 있다.

(1) 신앙과 인성의 성장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앙과 인성의 성장은 기독교대안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이고 성과라 할 수 있다. 신앙교육이 인성교육의 토대가 된다고 믿는 점에서 세 학교는 동일하다. 그래서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워서(강촌학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섬기는 제자를 양육하고자 하고(미래학교), 기독교정신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동서고등학교).

신앙교육을 학교교육의 모토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교육과정, 학교행정, 학교문화 등과 같은 교육의 실제적인 면에서 신앙적 성격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사립학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신앙교육이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아침묵상, 성서일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채플이나 성경과목이 교육과정 상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입생 선발, 학부모와의 관계, 재정 사용 등에서도 신앙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의 학습능력을 우선시 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학교가 지향하는 신앙교육에 동의하는지를 중요하게 점검한다.

인성교육 역시 신앙교육과 비슷하게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학교행정, 학교문화 등에 골고루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래학교는 경청, 순종, 검약, 공경 등과 같은 24가지 성품에 대해 한 달에 한 주제씩 배우고 실천하는 성품교육을 중시한다. 그리고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섬겨요’를 줄여 ‘하다 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실천한 것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애아 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아를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 가운데는 학교가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지식교육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 측과 조금의 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강촌학교는 오전에만 학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전인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체험학습은 발일 등을 하는 노작 수업, 유도, 수영 등과 같은 체육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수업인 열린 수업, 전체 가족회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강촌학교는 자연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중시한다. 그리고 외국 생활과 해외 여행을 통해 국제적인 시야를 갖게 하고자 의도하고 있고, 해외여행 시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앞장서서 가이드를 하게 함으로 생존력과 리더십을 길러주고자 한다.

동서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동료 멘토, 선배 멘토, 교사 멘토, 교장 멘토를 갖는다. 정기적으로 멘토링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 국토순례, 지리산 종주, 문학기행 등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들이다. 수업 가운데 ‘농업의 이해’와 ‘숲과 인간’ 시간에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친화적 삶을 배움으로 인성교육을 목표로 한다. 농업시간에는 텃밭 가꾸기, 황토염색,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편 동서고등학교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점이 학교가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세 학교에서는 신앙과 인성의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욕설을 하지 않는 것, 자신감과 자존감 형성 등을 들고 있다. 비록 인성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분명하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지금 4학년들은 1학년 때부터 [미래]학교에서 딱 4년 교육받은 애들이거든요. 개들은 너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조차 좀 다른 거죠(미래학교 30대 여교사).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눈에 띄죠. 성품 훈련 받은 표시가 나요(미래학교 5학년 학부모).

아이들의 삶의 태도에서 성장이 보여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강한테 점차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주위 교회 어른들도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칭찬해요(강촌학교 30대 남교사).

느끼는 거죠. 그냥 생활하면서, 내가 뭐 달라졌구나 그런거. 아이들 모습 보면서도 느껴요. 식사할 때도 섬기고 하는 것 보면서(강촌학교 중 2여학생).

1학년 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이 더 인간적이고 이쁘고 성숙해 보여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표정이 밝아지고 인사성이 좋아져요(동서고 40대 여교사).

(2) 삶의 목표 설정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공통적으로 비교적 뚜렷한 교육목표를 갖고 있다. 그 교육목표는 내용에 있어 분명할 뿐 아니라 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학교 홍보용 책자에서 제시하는 학교의 이념이나 학교교육의 목표들은 단지 문서상에만 나와 있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 교직원들과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다. 학교가 겉으로 표방하는 교육목표와 실제의 목표가 종종 괴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일반학교들과는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학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강촌학교는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위해 지식보다는 삶, 물질보다 믿음, 경쟁보다 함께 하는 삶,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동서고등학교는 기독교적 인성교육과 자연친화적 교육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학교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희규, 2004). 그러므로 대개 학교의 목표와 비전의 명료성과 공유성을 효과적인 학교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이해우, 2002; Bryk, Lee, & Holland, 1993; Hoy and Miskel, 1999). 그런 면에서 기독교대안학교들에서 교육목표가 분명하고 구성원들 다수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학교들이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목표가 분명한 기독교대안학교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게 된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나 좋은 대학을 강조하지 않는다. 대신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이 행복한 삶,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강조를 한다. 그래서인지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은 미래에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보다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은 학생들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의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봉사활동의 경험으로 장애인들을 돕는 특수학교교사가 되겠다는 학생, IMF 경험으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경제학자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학생, 인도에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 복음도 전하고 좋은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학생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입학할 때의 모습과 졸업할 때의 모습이 달라요. [졸업할 때는]자기 갈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저희 학교의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동서고 40대 여교사).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저는 목표가 있으니, 우리나라 연고주의, 학벌주의에 연연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동서고 3남학생).

목표가 중요하죠. 왜 공부를 하느냐면, 하나는 공부해서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강촌)학교에서 배웠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강촌학교 고2 여학생).

(3) 공부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

기독교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와 흥미를 갖게 된다. 학업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지표이지만 동시에 학업에 대한 흥미, 자신감, 동기,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학습심리적 요소 역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취가 학업적인 면에서도 일반학교와는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시험에 의한 학업성취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⁵⁾ 이들 학교들은 대개 학업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 동기, 흥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초등학교 과정인 미래학교의 경우 참관한 수업 대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2학년 1교시 국어시간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유롭게 노는 시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장애아에 대한 이야기인 ‘가방 들어주는 아이’란 스토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먼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자 아이들은 조용히 들으며 낮은 목소리로 따라 읽곤 하였다. 책 읽

5) 연구대상 학교들 가운데 동서고등학교는 인가받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국 학력평가 시험을 친다고 하였다.

기가 마치자 아이들은 손을 들고 모르는 단어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들고 대답을 열심히 한곤 했다. 장애인을 보면 드는 생각, 하나님과 장애인, 우리사회의 훌륭한 장애인 등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업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것 때문인지 웃음소리가 잘 나지는 않았지만 2학년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고등학교 과정인 강촌학교와 동서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도와 참여도가 높았는데 비해 주로 교사에 의해 주도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도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였다. 강촌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수 있었다. 강촌학교의 고 1 역사 수업은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교사에 의해 설명이 이어졌고, 후반부에서는 관련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전반부에서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후반부의 비디오 자료는 열심히 보는 일반 학교에서와 유사한 풍경을 보여주었다. 반면, 중2 수학 수업에서는 교사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진도에 맞춰 학생들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추어 진도를 조절하다 보니 어려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없이 대부분 문제를 성실히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안학교의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공부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성과를 따지자면 공부에 대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나, 재미를 느껴서 스스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미래학교 40대 여교사)

저희 아이들은 배움의 기쁨이 있고 선생님은 가르침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수업을 보면 아시겠지만 탄성이나 감탄사...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미래학교 30대 남교사).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최소한 저희가 고기는 많이 못 잡아도 잡는 방법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늘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맡겼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생각해요(강촌학교 30대 남교사).

(4) 교사와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이다. 연구자가 면담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학생과 교사들의 말을 통해서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졸업 후 졸업생들이 학교를 자주 찾아오는 편이고, 군 입대 할 때나 제대를 하면 반드시 학교에 와서 인사를 한다고 했다. 강촌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처음으로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은 한 졸업생은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한 날 후배들을 위해 간식을 사서 방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촌학교와 동서고등학교에서 어떤 졸업생들은 학교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와서 후배들을 지도해주기도 하고, 후배들의 문학기행에 보조교사로 동행하기도 했다. 또한 형제나 남매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형이나 언니가 그 학교에 다니면 동생도 같은 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과 교사 간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모든 수업이 소규모 학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원활한 편이고, 특히 여행이나 노작 등 많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상호간에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참 좋아해요. 방학을 싫어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왜 운동장도 없는 학교에 보냈냐고 싫어하다가 한 학기 지나면 학교를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미래학교 30대 여교사).

그 아이[졸업생]가 오늘 [학교에]와서 저를 껴안으면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학교 오려고 38번 버스를 탔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하더라구요. 그리고 호주에 있으면서 가족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더 보고 싶었어요 하는데....(동서고 40대 여교사)

전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냥 주입식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유전학 할 때 전 질문을 대개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해보고 원리를 생각해보요. 공식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나왔느냐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중략)원리를 알고 그걸 실생활에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거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전 학교가 좋아요.(강촌 학교 고2 여학생).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등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반면에 학업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점수는 매우 낮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낮게 조사되고 있다 (이혜영 외, 2008).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대안학교가 학생

들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며,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기독교대안학교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가받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강영혜, 박소영, 2008)를 고려할 때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적 성과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학업 성취도의 면에서도 수월성, 평등성, 기초 보장성, 향상성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측정해볼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고안하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 배움의 공동체 실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학교 내에 배움의 공동체가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움의 공동체란 학교에서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워가며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말한다(사토마나부, 2001; 2006). 기독교대안학교는 학생들만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은 학교교육의 목표이고 중요한 교육성과라고 기독교대안학교 구성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의 성장에 대해서는 세 학교 교사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교사들은 인성과 전문성에서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 교사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다르다. 동서고등학교와 미래학교의 경우는 교사교육을 중시하는데 비해 강촌학교의 경우는 특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생활 가운데 배움을 익혀나가는 형태이다.

먼저 동서고등학교의 경우는 정기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교육에 중점을 둔다. 매주 금요일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수를 받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다른 기관에 가거나 사이버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방학 중 이루어지는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연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한다.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에도 ‘놀이 마술’의 주제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도 하고, 다른 교사들은 아이들과의 부대끼는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간다고도 한다.

미래학교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성품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교사교육이다. 학생들에게 성품교육을 하기 전에 교사들이 먼저 그 주제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교사의 날(teacher's day)이라 해서 휴업을 하고 교사들만 학교에 모여 공부를 같이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름방학 중에는 미래학교 아카데미를 여는데 학교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그리고 교사교육과는 달리 한 달에 한번 정도 수업두레(줄여서 수레)를 하는데 이는 사토마나부(2001)가 말하는 수업연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고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참관한 뒤 함께 수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해 수레를 끌듯이 교사들이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자신의 수업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강촌학교는 앞의 두 학교와 달리 교사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강촌학교 교사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간다고 한다.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체득해가는 것이 강촌학교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 학교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교사들의 배움과 변화가 학교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변화해가는 거죠. 초기엔 아이들과의 면담에서 아이들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주로 봅니다(강촌학교 50대 여교사).

선생님들이 성숙해져가는 것만 봐도 그 학교가 성숙해져가고 있고, 목표를 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분명히 성과이지만 선생님들도 큰 성과와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성격 많이 좋아졌거든요. (중략) 학급운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커져가고 학급운영에 원숙해진다면 성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동서고 30대 남교사).

저희는 자체연수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는 기회도 있어요. 저도 다녀왔는데 그 경험은 제 가슴에 평생 품고 있는 그런 거예요. 저도 4년차가 되었다 해서 내 자리에 멈추어있는 것이 아니라 4년차가 되었으면 그만큼 더 발전해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좀 다른 모습 같아요(미래학교 40대 여교사).

교사의 성장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서도 관심을 쏟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학부모의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가정을 학교의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학교는 미래학교이다.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유·초등학교 과정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미래학교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고, 가정과 함께 하는 학교라는 것을 학교의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매주 2시간 정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교육은 교목의 설교, 학부모 기도회,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소개, 교장의 짧은 강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부모교육은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활동을 부모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학교와 학부모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동아리활동의 지도교사와 수업의 보조교사 등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학교와 동일한 교육철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요청받는다. 미래학교의 학부모들은 매주 있는 학부모교육에의 참여, 가정에서의 실천사항 등과 같은 학교의 요구들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 뿐 아니라 자신들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촌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단지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순서를 정해 학생들의 점심밥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밥에는 정성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학교장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식사봉사를 관리하는 학부모는 강촌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이유가 부모들이 지어주는 건강한 식단과 관계한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자가 면담한 강촌학교 학부모들은 학교를 통해서 자신이 많이 배우고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동서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전국에 산재해있어서인지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았다. 축제와 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한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부모 기도회를 학교에서 요청하지만 학부모들이 모이기가 힘들다고 한다. 연구자가 면담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교사들이 문자로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주어서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지나보면 아이들 덕분에 학교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게 참 커요(미래학교 2학년 학부모).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중략)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아이도 변하고 저희도 변하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강촌학교 중2 학부모).

배움의 공동체의 중요한 속성은 구성원들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통한 배움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강촌학교가 전형적인 배움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학생 상호간,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로인해 각 구성원들이 인성과 학업/전문성의 면에서 많은 배움을 얻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 강한 공동체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공동노력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사들의 배움에 더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미래학교의 수업두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는 수업연구를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두가 중요한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배움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 학교들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미래학교와 강촌학교의 많은 학부모들은 그 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성도들이기도 하다. 교회를 신앙을 배워가는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처럼 학교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 배움과 공동체의식은 교사나 학부모들에게도 익숙한 문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담당하거나 교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학교가 교회와 같은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 개의 기독교대안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들의 교육적 성과

가 어떤지 탐구하였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당장에 나타나는 교육성과 보다는 보다 내면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성과를 추구하고 있었다. 잠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면적인 교육성과에는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의 성장, 삶의 목표 설정,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이러한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구현되고 있음을 중요한 교육성과로 볼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이와 같이 교육성과를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의 규모가 작고 신앙을 토대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작은 학교이기에 학생 상호간,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밀접하게 일어날 수 있고,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끈으로 작용하며 학교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힘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가톨릭고등학교가 우수한 교육성과를 낳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Bryk, Lee, & Holland, 1993).

둘째, 교직원들의 높은 헌신도가 학교의 교육성과를 낳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임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⁶⁾ 조사 대상 기독교대안학교들에서는 교사들의 헌신도가 일반학교의 교사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조용환 (1999)의 대안학교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방과 후나 방학 때에도 학생들을 불러내어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별도의 보충지도를 하기도 한다. 특히 강촌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 캠퍼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늘 함께 지내게 된다. 정기적으로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경우(Kang, 2006)와는 달리 강촌학교 교사들은 힘들어 하면서도 보람을 강조한다. 낮은 보수를 받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현실 속에서도 이들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이직률은 아주 낮은 편이다.

6) 인가 받은 동서고의 경우는 교사들의 급여가 일반 학교 교사의 수준이고, 미래학교의 경우도 다른 미인가 대안학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셋째, 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지원이 기독교대안학교의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세 학교 모두 지역 교회가 설립을 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 교회는 학교의 건물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 학교 운영비나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학교의 중요한 정신적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래학교와 동서고등학교는 학교 행정의 면에서 교회의 간섭이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강촌학교의 경우는 교회와 학교가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교회 목사가 교장을 맡고 있다. 교회의 물적, 영적인 지원이 학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세 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학교와 기독교학교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교가 교육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대한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토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활동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갖고 학업에 대한 흥미, 내적 동기, 자발성 등을 갖게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실제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학생들이 교사들과의 인격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때 자신들의 삶의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발성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의 높은 헌신도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교육의 성과를 내게 만드는 요인은 교사들의 열의와 헌신이다.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교사의 헌신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혜·박소영 (2008).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고병헌 외 (2009).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 서울: 이매진.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김양분 · 강상진 · 유한구 · 남궁지영 (2003). "학교교육수준 및 실태분석 연구: 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 박병영 · 남궁지영 · 황지희 (2007). "학교교육의 실태 및 수준분석: 중학교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연 (2008).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희규 (2004). "Senge의 학습조직이론의 학교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1), 67-87.
- 박상진 (2007).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세미나 자료집.
- 민들레 편집실 (2005). "대안학교가 제도화된다?" 『민들레』. 42호, 130-140.
- 사토마나부 (2001).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 서울: 공감.
- 사토마나부 (2006).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재구축으로." 2006년 한국교육학회 초청 강연.
- 손영덕 (2003). "대안학교 교육만족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엄재춘 (2005). "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이병환, 김영순 (2008).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 서울: 학지사.
- 이선숙 (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서울: 교육과학사.
- 이수광 (2005).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논찬."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심포지엄.
-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 이춘화 (2004). "대안학교 교육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현병호 (2005). "대안교육과 전망과 과제." 제 2차 카톨릭적 대안교육 교사연수 자료집, 양업고등학교, 18-28.
- 이정미 (2006). "기독교학교 자체평가 준거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18-62.
- 이혜우 (2002).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분석을 통한 학교경영체제모형 탐색." 『교육학연구』. 20(1), 233-255.
- 이혜영 · 강영혜 · 박재윤 · 나병현 · 김민조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현정 · 김양분 · 장운선 · 기경희 (2008).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 초등학교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 정택희 외 (2008). “한국의 교육지수 개발연구: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정희영 (2009). “기독교교사교육 프로그램 현황분석.” 『신앙과 학문』 14(2). 197-223.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정윤·이정미·정진철·성태제 (2007). “한국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윤·이정미·나민주·이병식 (2008). “한국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 Bryk, A., Lee, V, & Holland, P. (1993).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lesne, C. (200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 An Introduction*. 안혜준 역 (2008). 『질적연구자 되기』.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Hoy, & Miskel (1999).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송화섭 역 (2000). 『최신교육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서울: 학문사.
- Kang, Y. (2006). “Building Authentic Communities Within Schools: A Case Study of Two Korean High Schools.”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Kim, K. (2009). “Perception Of the Rationale For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Ph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Seminary.
-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Sage.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Outcom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Young-Taek Kang(Woosuk University)

I had selected thre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nd research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schools to find the educational outcom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This study tried to find how much the schools achieve their goals for analyzing the outcom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is study shows that the alternative schools get two educational outcomes. First,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pursued to get internal and long-term outcomes rather than apparent and short-term outcomes. The internal outcomes that I had found are the growth of students' faith and personality, setting of goals and visions, spontaneity and interests of study, and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schools. Second, the schools became learning communities in which the school members learn and grow together.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were able to get the educational outcomes because of three factors. First,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re small-sized schools and educational communities based on Christian faith. Second, most teachers of the schools are highly committed to the schooling. Third, the financial and spiritual support of the churches which built the schools take a significant role in the schooling

Key Words: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educational outcome, qualitative case study, learning community